

IMF와의 『경제 및 금융정책에 관한 Memorandum』

본 Memorandum은 IMF의 『Staff-Monitored Programs(SMP)』의 성격으로, IMF와 우즈베키스탄 정부간 2002년 상반기 중 추진해야 할 주요 경제 및 금융정책에 대한 개혁조치에 관한 합의의사록(instrument for dialogue)이며, IMF는 동 이행사항에 대한 평가결과를 토대로 우즈베키스탄에 대해 금융지원을 결정할 예정임

1. 도입 배경

- 우즈베크 정부는 2001년 상반기 중 외환자유화를 위한 일련의 조치에 이어 하반기에는 IMF와 협의하여 거시경제정책 강화 및 구조개혁조치를 취하였으나 9.11 테러사건 이후 국제원자재가격 하락 등 국제경제환경의 악화로 일부 목표를 수정하였는 바,

이번 Memorandum은 이 수정 내용을 반영하고 경제활동 전반에 관한 정부의 규제 및 제한을 완화하여 시장을 통한 가격결정 및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기하고자 함

2. Memorandum의 주요 내용

- 외환거래에 대한 제한을 점진적으로 철폐하고, 상반기중 단일환율제 시행
 - o 환율의 급격한 변동을 피하기 위해 긴축정책과 외환자유화정책을 병행
- 외환자유화의 첫단계로 장외시장에서의 외환 매입 규제 폐지

- 기 외환거래 금지 소비재 품목수 축소조치(15개)에 이어 3월말까지 추가로 20개, 6월말까지 외환거래 금지품목 완전 해제
- 개인의 은행에서의 외화매입을 2002. 1. 1부터 750달러까지, 4. 1부터는 1,000달러까지 허용하고, 하반기 이후에도 이를 계속 증액될 전망
- 장외시장(OTC)환율과 암거래시장환율의 차이를 3. 31일까지 50%내로 축소케 하고, 6. 30일까지는 20%내로 축소토록 할 계획
- 경제성장과 빈곤 축소를 위해 농업부문에 대한 개혁조치 도입
 - 원면과 곡물에 대한 국가의 강제적인 생산목표 책정 등을 통해 시행되고 있는 수매제도의 개선
 - 정부의 원면 수매가격은 국제가격 수준에서, 곡물은 지역 거래소 가격 수준에서 결정
 - 수매량과 관련해서는, 개인이 생산한 원면 및 곡물 전체 생산량의 30%는 정부조달가격으로, 20%는 당사자간 합의가격(negotiated price)으로, 나머지 50%는 개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처분토록 함
 - 이를 위해, 현행 원면 국가조달에 관한 법령(No.477, 2001. 12.19)은 2002. 8. 1.까지, 곡물 국가조달에 관한 법령(No.27, 2002. 1.19)은 2002. 5. 1.까지 개정
- 은행제도 개혁조치
 - 기존 중앙은행에 의해 이루어진 신용배분(allocation of credit)제도에 경쟁원리를 도입(competitive credit auctions)하여 시장원리(market based)에 따른 배분 지향
 - 2002. 1. 1부터 정부의 상업은행에 대한 부당한 간섭 및 요구 등 배제 조치
 - 향후 현지화 및 외화대출에 대한 정부지급보증 한도는 의회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예산법에서 정하도록 함

- 2002. 6. 1까지 대통령령 UP-2564를 개정하여 개인기업들의 은행 자기구좌에서의 현금인출을 자유롭게 함
 - 현재는 매출액(turnover)의 50% 한도로 제한
- 이 외에 2003. 1. 1.까지 개인 및 기업들의 은행 현금인출과 관련한 규제 조치들을 폐지
 - 다만, 세금탈루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세행정 강화조치
- 중앙은행의 역할 증대와 투명성 제고 계획
 - 2002. 3. 31까지 국제회계감사기관을 선정, 2001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를 받도록 함
 - 외환보유고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NBU은행에 위탁·관리하는 금 및 외환보유고 관리를 중앙은행으로 이관
 - 당분간 NBU은행은 중앙은행을 대신해서 금 및 외환보유고에 관한 국제회계기관의 평가 관련 정보 등을 IMF에게 제공
 - 통화 및 환율정책의 효율화를 위해 중앙은행이 운영하고 있는 종합환율안정기금(Consolidated Stabilization Fund) 운영위원을 중앙은행 직원으로 제한
- 물가정책과 관련 독점권 및 독점상품의 수를 점차적으로 축소
 - 상반기중 각각 184개(25%), 52개(16%)까지 축소
 - 2001년 11월 공정환율과 장외시장환율의 단일화 과정에서, 기초 생필품(socially important goods) 가격의 급등을 막기 위해 도입되었던 거래가격 제한제도를 2002. 12. 31.까지 폐지
- 무역자유화조치의 일환으로 2002년중 추가적인 수입관세제도의 개선 및 단순화 조치 추진

- 수출금지 품목수 축소
- 2002년 말까지 수입계약에 대한 사전등록제도 폐지(국가구매계약은 제외). 자본유출 및 부패 방지 등을 위한 수입계약의 합법성만 모니터링
- 거시경제통계의 신뢰성 및 적시성을 위해 IMF 등 국제금융기관들의 기술적 권고사항 이행
- 독립된 통계기관의 설립 등 새로운 통계법을 2002. 말까지 확정·시행토록 함

3. 2002년 거시경제 프로그램

IMF 2002 경제전망

- 실질 GDP성장률은 대외경제환경 악화 등으로 2%를 약간 상회하고, 물가 상승률은 약 18%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 (우즈베크 정부 예상치는 각각 5%, 14%임)
- 경상수지는 국제원자재 가격 약세와 외환자유화 추진 등으로 적자폭이 2001년 보다 약간 늘어난 GDP의 1% 수준으로 전망되며, 자본수지는 흑자 시현 전망
- 2002년중 긴축재정정책으로 재정적자는 GDP의 약 3%로 예상
 - 이를 위해 급격한 임금인상을 자제 → 연간 인상가능 횟수를 종전 1회에서 2회로 늘리되, 최초 임금인상 가능시기는 4. 1.로 하고 인상폭은 최대 15%로 제한
 - 2002년중 정부의 중앙은행으로부터의 총차입한도를 GDP의 0.5%로 제한
- 2002년 통화정책의 주요 목표는 물가상승 억제와 급격한 환율 변동 방지에 둠

- 2002. 1. 1.부터 중앙은행 재할인율(refinancing rate)을 월 2.0%에서 월 2.5%로 인상
 - 중앙은행은 2002년 중 재할인율을 실물부문 추이에 맞추어 탄력적으로 조절
- 엄격한 여신규제와 금리조정을 통해 2002년 말 순외화준비자산(net international reserve)을 10억달러 수준으로 계획
- 외환보유고는 2002년중 90백만달러 정도 감소 예상
- 중앙은행의 정부 앞 순여신한도는 2002년 3월말 기준 77억Sum, 2002년 6월말 229억Sum으로 각각 제한

4. 2002년 상반기 이후 개혁과제

- 거시경제 안정, 경제성장 지속, 빈곤 축소 등을 위해 거시경제개혁 및 구조조정 노력 계속
- 민간부문(특히, 중소기업)의 실질성장과 고용창출을 위해 각종 규제 철폐
- 인근국가들과의 경제협력 강화
- IMF의 금융협력 프로그램/framework of a program of financial cooperation with the Fund)에 따라 무역자유화조치 지속
 - 장외 외환시장의 접근에 관한 외환규제 철폐, 외환 강제매각 의무(요건) 축소
 - 수입관세제도 합리화, 관세절차의 단순화, 점진적인 수출금지품목 폐지 등 무역자유화 노력 계속 → 우즈베키스탄의 WTO 가입 논의 촉진
- 중기적으로 대외차입 억제와 긴축정책으로 D.S.R과 외채상환액/GDP 비율을 낮춤

- 국내경제 구조개혁조치 일환으로 2001~2002 기간 중 종합 민영화프로그램 추진
 - o 전력, 석유·가스, 원면가공, 석탄, 화학, 철도운송, 가구제조 등 부문의 독점체제 해제
 - o 원면 및 곡물에 대한 국가수매제도 개선. 특히, 조면공장(cotton ginneries) 지배지분에 대한 민영화 및 조면 수출절차의 자유화 추진
- 재정개혁조치 채택
 - o World Bank의 구조개혁 프로젝트(Public Finance Management Reform Project)의 조속 채택
- 외환자유화 과정에서의 상업은행 및 기업들에 대해 필요시 예산 지원
 - o 반면, 중앙은행의 은행감독 기능 향상
 - o 중앙은행은 내·외부 감사기관의 권고사항이 은행경영에 적시 반영·이행될 수 있도록 권고
 - o Asaka은행과 NBU은행은 각각 2003년, 2004년까지 민영화 추진
 - o 중앙은행은 통화정책으로 국채·CD 발행 등 간접적인 통화관리방식을 보다 많이 이용
- 2002년 상반기 이후에도 이상의 조치들을 향후 IMF 금융지원 관련 경제개혁프로그램의 골간으로 함
 - o 2002년 2/4분기중 IMF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협의하여 합의안(Understandings)을 IMF 이사회에 제출

- 중앙은행은 변동환율정책을 채택토록 함
 - o 지속적인 평가절하는 주요 생필품에 대한 수입가격 인상으로 물가상승 및 빈곤층 부양 프로그램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겠지만, 장기적으로는 경제에 긍정적 작용 전망
 - o 다만, 급격한 평가절하는 외채상환부담 가중, 세수감소, 수입가격 급상승에 따른 관련업계 타격 등 부정적 영향 예상 염두
- IMF는 SMP기간중 세수감소시 이의 보전을 위해 국제금융기관 및 채권기관들의 우즈베키에 대해 금융지원토록 권고하는 한편 우즈베키 정부의 SMP 이행상황 관련 정보를 제공할 계획

5. SMP 이행점검

- IMF는 4월말/5월초에 IMF 제8조(제2, 3, 4항) 의무이행 준수와 관련한 외환관리규정에 대한 점검
- o 7월말/8월초에는 IMF의 금융지원을 결정케 됨

<우즈베키스탄 주재원>